



#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...

여러분의 동역으로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.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Mongolia

## 2016년 7월 ~ 12월 소식입니다.

안녕하세요? ^^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런 상황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음을 믿습니다.

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곳 사역에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늘 그렇듯 올 한 해도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을 하려합니다. 또한 필드에서 현지인 직원들이 마음을 갖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주고, 때론 격려하고 때론 응원하며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.

동역자 여러분의 사역과 섬기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... 또한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..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

### ● 상담(교제)의 시간

이제는 제법 규모를 갖추어 가는 듯 해 보입니다. 부모를 불러 상담을 하고, 때론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고, 때론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기도 합니다. 이러다보니 서로 간에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아이들을 대하는 담당자나 담당자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올 한 해 좀 더 발전시키면서 내년에는 복음으로 접근을 시도해볼까?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. 아래에 방과후수업 사진과 같이 보여드립니다.



## ● 아버지의 날 행사 및 부모세미나

날라흐지역에 아버지의 날 행사가 구청의 행사로 치러졌습니다. 지역 내에 6개의 학교가 함께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치렀고, 9명의 모범아버지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했던 119번학교는 구 전체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학교의 차원에서 따로 아버지의 날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. 물론 저희의 역할은 전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. 앞으로 2~3년 지나면 저희의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아버지들을 격려하게 되지 않을까? 합니다.

이번엔 지역방송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행사를 치렀는데, 특히 아버지의 날 행사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이번 기회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보자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. 이 돈으로 지역의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사는 가정을 위해 식품 및 석탄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아버지들이 격려를 받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, 이를 통해 가정이 건강해 지길 기도합니다. ^^



\* 6개 학교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 / 모범아버지 가정방문 인터뷰 / 모범아버지 시상



부모세미나

## ● 가정방문 및 각종지원 프로그램

(순서 : 가정방문, 학용품지원, 식품지원, 겨울용품지원, 석탄지원, 교복지원 순서로 배열)



● 여름캠프 ( 1년 중 아동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입니다. )



후원자에게 편지쓰기

배식 및 부식 관리팀

취사팀 (전문 요리사와 아동의 엄마)



● 자원봉사자 교육

● 음향장비팀 CDP아동들이 척척

● 의대생들로 구성된 의료팀

● 크리스마스 / 전센터부모체육대회 / 명지대 대학생 봉사



- 크리스마스 행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뽐낼수 있는 무대입니다. 며칠전부터 자기들이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. 나눠주는 케익은 가족이 함께하는 연말파티에 사용합니다. 그래서 부모들도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. ^^
- 처음으로 전센터 부모들을 한곳에 모아 체육행사를 했습니다. 아동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자라남에 가장 큰 힘은 부모들입니다.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행사를 꾸렸는데, 아주 신이 났습니다. 이런 놀이의 장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닌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매년 하자고 벌써부터 성화입니다. ^^
- 명지대 학생들이 종머드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놀이와 공작 활동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.

## ● 졸업생 여행 및 생일파티



2017년 5월에 졸업을 하는 아동들과 졸업여행을 했습니다. 사진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3월에 했더니 너무 추워서 이번에는 마지막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9월에 시간을 갖었습니다.

## ● 가족이야기

영훈이도 이번에 형(영찬)을 따라 러시아 톱스크라는 지역에 있는 톱스크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로봇공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영찬이나 영훈이나 혼자 아닌 둘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젠 좀 더 안심이 되는군요. 영찬이 혼자 있으면서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. ^^ 이젠 둘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. 저희는 몽골에 둘이 남아 전 보다 더 알콩달콩??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더 해 갈수록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.

"보다 나은 다음을 기대하며..."

몽골에서 김준태, 천선희(영찬, 영훈) 선교사 올림.

연락처 : 몽골 976-9944-8115 , 976-9947-8115  
070-4642-8117

peter66@hanmail.net

후원계좌 : 660401-01-179920 국민은행 김준태